

가는 횟수는 1~4회가 39%로 제일 많았고 90% 이상의 응답자는 만성질환이 없으며 66.5%가 대도시에서 성장하였다.

2. 건강통제위 성향과 자가간호 이행과의 상관관계는 내적 통제위 성향과 타인의존 통제위 성향이 강할수록 수면 및 휴식의 자가간호 이행에 유의하게 나타났다($r=0.1302$, $p=0.040$, $r=0.1753$, $p=0.00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통제위 성향분포의 차이는 전공과 성별요인이 내적통제 위 성향에 유의하게 나타났다($t=2.49$, $p=0.04$, $t=2.63$, $p=0.024$).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 이행정도의 차이는 전공과 성별요인이 자가간호 이행중 운동영역에 유의하게 나타났다($t=2.89$, $p=0.02$, $t=2.89$, $p=0.02$).

2. 제 언

1. 연구도구의 일반화를 위해 반복연구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2. 자가간호 이행에 영향을 미칠 통제위 개념 이외의 다른 요인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남녀 대학생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제32권 제1호, 1989.

강 현 숙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인구나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얻기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경북지역에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220명으로 1988년 6월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1주일 동안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족계획에 대한 이해는 '알맞게 낳아 잘기르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44.9%, 여학생 : 78.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2.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는 '찬성'이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74.6%, 여학생 : 88.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3. 가족계획의 이상적인 시기는 '결혼전 부터'가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44.9%, 여학생 78.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0$).
4. 가족계획에 대한 부모와의 이견이 있을 경우 남학생은 '자신의 계획대로 하겠다'에 49.2%, 여학생은 '서로 타협하겠다'에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5. 결혼생활에 있어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녀가 꼭 있어야 된다’가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76.3% , 여학생 : 57.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6. 불임시 입양에 대한 태도는 ‘찬성’이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44.9% , 여학생 : 77.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0$).

7. 희망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49.2% , 여학생 : 37.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8.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이 강했으며(남학생 ; 10.2% , 여학생 : 2.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9. 노후문제에 대한태도는 ‘배우자와 살거나 혹은 혼자살겠다’가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45.8% , 여학생 : 63.7%),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경험의 관계연구

최신의학 제32권 제2호, 1989.

강 현 숙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1988년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대전시내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에 대한 태도

(1)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찬성’이 50% 이었으며, 남학생(70%)이 여학생(30%)보다 찬성율이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2)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에 92.5%의 학생이 응답했으며, 여학생(98%)이 남학생(87%)보다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3) 성행위에 대한 시각은 76%가 ‘자연스런 행동’이라고 응답했으며, 남학생(86%)이 여학생(66%)보다 더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4) 이성교제 :